

정보화시대의 종이책

현원복

과학저널리스트

10여년 전 정보기술혁명의 미래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의 하나는 '종이 없는 사무실'이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과 전자우편과 같은 비즈니스 통신망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억시키거나 마이크로 필름화하기 때문에 종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종이의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어 결국 제지·인쇄·출판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는 반대로 글쓰기와 인쇄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9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빠른 걸음으로 번져나가면서 오히려 종이의 사용량은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2년 이래 세계 종이 사용량의 증가율은 2배가 됐고 특히 지난 5년간 인터넷 이용률이 치솟으면서 북미의 인쇄 및 글쓰기용 종이의 생산고는 13%나 늘어났다. 1996년 한해동안 미국의 가정과 사무실의 복사기·팩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가 토해낸 종이의 양은 무려 8천6백억장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더 많은 정보를 싸고 쉽게 공급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검색한 정보의 인쇄량은 더욱 늘어났고 미국에서만 매일 수억통이나 교환되는 전자우편의 경우,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드 카피로 보관해 둔다. 책의 경우도 인터넷 덕에 더 많은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서적상이며 4백 50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고는 그 전해보다 거의 4배나 늘어난 5억7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통하는 것보다 종이와 책을 선호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데스크탑 컴퓨터는 고정된 자세로 글을 읽어야 하고 보는 각도가 한정돼 있지만 책은 어디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뒤로 기대거나 눕거나 엎드리거나 읽는 자세에도 거의 제약이 없다. IBM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을 때 스크린에서 읽는 것보다 속도가 30%나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요한 이유는 스크린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따라가자면 현재의 스크린 해상도를 적어도 2배(매 cm당 60개의 화소의 비율이며 화소는 영상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경우 최소단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스크린이 독서에 불리한 점은 이밖에도 스크린의 모습이 글읽기에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스크린은 당초 글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물을 구경할 목적으로 설계된 텔레비전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전자책이 개발돼 21세기초에는 줄줄이 선보일 전망이다. 그중에는 인쇄물과 매우 닮은 전자책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전자책도 재래의 종이책을 몰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기술은 정보의 장기 보존면에서 책의 우수성을 따라올 수 없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3차원 공간에서 살며 일하는 실체이지 디지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상문화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보다 그림 위주의 영상정보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천년 동안 인류문명사가 보여주듯 인간은 글을 통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 매체인 종이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출판과 디지털 인쇄장비 등 첨단 전자기술을 원용하여 출판비를 절감하고 재고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인쇄문화시대를 기대해 본다. ◆

초점	2	국내 사이버서점가에 '아마존' 상륙하다 대기업 삼성과 손잡고 '인터넷 쇼핑물' 문 열어
발언대	3	거래표준화는 최소의 안전장치 - 이승용
특집	4	책으로 느껴보는 영국의 사회와 문화 역사·기행·실용서 등 폭넓게 출간
	5	주한 영국문화원 자료실을 찾아서
	6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작가들
	7	책에서 시작되는 영국과의 문화교류
	8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도 든든한 전통의 뿌리 책의 왕국 영국의 출판과 그 주변
	10	책다움에서 시작하는 실험적 표현 - 차정인
에세이	11	수줍은 듯 유보적인 영국의 책문화 - 이석우
출판서론	12	세계체제의 위기와 한반도 문제 - 이수훈 윌러스틴의 저서를 통해 읽는다
책갈피 산책	13	이옥순 《여성적인 동양이 ...》를 읽고 - 김기협
출판화제	14	알고보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15	책 속의 요리, 책 밖의 음식문화
	16	1318세대 출판시장에 변화바람
출판가	17	출판인 재교육 사회 밖으로 눈돌리면 다양
특별기획	18	사상적 지형 이론 서양철학의 고전들 - 윤평중
기상대담	20	진실은 묻히고 가설이 꽃피는 천이백년 - 허세욱 이백과 두보의 대담
만화	21	책과 오과장 - 박시백
마케팅 캠프	22	종이책만이 갖는 새로운 장점 찾아야 - 한기호
출판광고 클리닉	23	디지털 창비로 거듭난 서른셋의 봄 - 마정미
표지 이야기	24	윌리엄 모리스의 '이상적인 책' · 외
서평	26	홍우관 《중국철학사》 - 송영배 양인리우 《중국 고대 음악사》 - 문성재
	27	뒤비 《전사와 농민》 - 유희수
	28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 한용원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 정재서
	29	남진우 《숲으로 된 성벽》 - 우찬제
이 책 그 사람	30	《숲과 한국문학》 펴낸 전영우씨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 펴낸 전영애씨
	31	《역사를 움직인 풍수이야기》 펴낸 정중수씨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수용 양상》 펴낸 정선태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독서피플